

창업교육에 대한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인식 연구

박지은¹, 고영건², 조정원³, 박정환^{4*}

¹제주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어늘문화센터 대표, ²제주시청 추자면사무소 주민자치팀장,
³제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⁴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study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bout Entrepreneurship Education

Ji-Eun Park¹, Yeong-geon Ko², Jungwon Cho³, Jung-Hwan Park^{4*}

¹Completion of the doctoral course i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Representative, Cultural Center Representative

²Team manager of citizen autonomy, Chuja-myeon Office, Jeju city hall

³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⁴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미래를 주도하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창업교육은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관한 기초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이론적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요구조사를 위해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수집한 239개의 설문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첫째, 졸업 직후의 진로와 더불어 졸업 후 기간이 경과한 후의 진로에 대해서도 고려한 다양한 진로교육과 관련된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합형태의 다양한 교육영역과 내용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자요구 분석을 통한 정부기관에서의 맞춤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주제어 : 창업, 유아교육, 창업교육 프로그램, 진로교육, 맞춤 프로그램

Abstract For students study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that leads the future, entrepreneurship education should be applicable to the educational field and targeting students study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 basic investigation on the recognition and demand for the necessity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should be preceded. Research that develop various entrepreneurial education programs is needed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students. Collected theoretical data through consideration of previous studies. and recognizing the necessity of entrepreneurship training, I produced an online survey for needs investigation of students study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I analyzed the data with 239 questionnaires collected. Research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related to various career educ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areer after graduation and a few years since they graduated. Second, it is necessary for a program that effectively and systematically develops various educational areas and contents in a mixed form of online and offline. Third, it is necessary to support customized programs in government agencies through the analysis of learner needs.

Key Words : Startup, Early childhood education, Startup education program, Career education, Customized program

*Corresponding Author : Jung-Hwan Park(edu114@jejunu.ac.kr)

Received September 11, 2020

Revised October 3,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Published October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창업이란 기업의 형태, 위치, 규모 및 사업방식에 관계없이 기존의 사업을 상속, 증여, 합병, 영입의 양수 등으로 승계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시(start-up)하는 것이다.

창업교육은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가르쳐 새로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1].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용자 입장에서 직무 수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며, 포괄적인 직무훈련의 개념도 포함한다[2]. 또한 창업교육은 21세기형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주된 교육으로 모험심, 개척정신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실행 능력을 함양하며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재정의 하였다[3]. 창업교육은 새로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에서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직무 수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창업교육과정으로써 학생들에게 직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 및 진로선택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으로 직업선택의 폭을 확대시키며[4], 도전적인 삶의 방식과 협업능력, 창조성,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 자기주도적인 자세와 자신감을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와 의지가 필요하다[5-6]. 이렇듯 도전적이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패러다임에 맞추어 주도적인 자세와 자신감을 갖도록 창업교육 필요성을 설명한다.

창업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교육 등을 통해 창업만이 아닌 진로선택 및 개인의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업교육을 통해 사회현상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를 강화할 수 있다[7]. 예컨대, 창

업교육은 자기의 삶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진로교육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라 볼 수 있다.

대학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창업 분야 및 아이템 확보를 위해 핵심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8]. 이에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초·중등 수업에 기업가정신과 창업 교육을 포함하였으며, 초·중·고 3, 4학년과 중·고등학생 1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초·중등 전체 학년으로 확대되었다. 효과적 창업교육을 위해 체계적인 창업교육 교과과정 개발이 필요하고[9],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아울러 청년창업도전의 활성화는 무엇보다 필요하며[10], 창업의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창업교육 교수법에 대한 활발한 연구는 필요하다[11].

또한, 지원 체계와 창업역량 향상을 통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12] 이로써 다양한 구성원들이 팀을 이뤄서 멘토링, 네트워킹,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 할 수 있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에 적합한 환경은 창업의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13]. 효과적인 창업교육을 위해서 체험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이론형 창업강좌를 통해서 개인의 성취욕구를 북돋아 주어야 하며[11], 다수의 청소년이 향후 창업에 도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시 긍정적 창업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14]. 이로써 다양한 형태의 체계적인 실무 위주의 창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15].

창업교육의 효과측면에서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역량을 높이고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이 기업가적 태도 발전이 창업의지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다양한 형태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개인의 기업가적 역량을 향상시킨다[16]. 또한 창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창업효능감과 기회인식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17].

본 연구를 통해 창업교육 설계과제와 실천전략으로 교육학의 적절한 응용이 필요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창업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18], 국내 창업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창업분야의 체계적인 연구와 양질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의 창업교육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창업과정 설계가 필요하다는 선행연구[19]와 맥락을 같이 하며, 유아교육과 학생들만의 창업교육

과정 설계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창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 왔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창업교육을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과 대학생의 대부분은 졸업 직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영유아 보육, 교육기관으로 취업하게 된다. 학부 과정에서의 교수자 및 학습자 모두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으며, 국내 대학에서는 관련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학문과 관련하여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을 확대하고자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20-22]. 타 전공의 경우 창업교육에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안경원 창업교육 요구도 [20], 유아교육학과에서 기업가정신과 창업과 관련한 선행연구 [21], 간호대학생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과 관련한 연구 [22] 등 학과별로 창업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이 수행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창업과 관련된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고, 요구에 따라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2 연구의 목적

미래를 주도하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창업교육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을 수강하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요구에 관한 기초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교육과정 안에서의 창업관련 교과(창업기초, 창업실무 등의 창업교과목)를 창업교육으로 포함한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요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창업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 1)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2)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창업교육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 3)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창업교육 수강여부에 따른 인식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창업 관련 교과(교육)프로그램의 요구에 관한 조사로 유아교육과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2.2 연구절차

2020년 3월~ 7월까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창업교육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유아교사의 인식과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요구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2020년 5월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유아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후 교육학과 교수 1인과 교육학과 박사과정 이상 3인에 의해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예비조사의 경우 최종적으로 제작된 설문지를 연구 대상인 유아교육과 졸업생 2인에게 설문지의 답을 하는 과정에서 안면타당도 분석을 통해 어렵게 이해되거나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의 재확인 후 진행하였다. 이후 교육학과 교수 1인과 교육학과 박사과정 이상 3인에 의해 설문항목마다 적절성, 유의미성, 유용성을 높다/적절하다/낮다로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낮다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 및 보완사항의 의견을 첨부한 후 내용을 재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교육학과 교수와의 협의를 거쳐 완성하였다.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제작하였으며, 총 8일간 유아교육과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URL을 공유하였다. 설문은 2020년 8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8일간 수집하였다. 총 설문은 242건에 해당하는 자료였으며, 설문에 자발적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설문과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하여 총 239개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대학교 창업교육이 청년창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3]와 대학의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창업 인식에 미치는 영향 및 창업교육에 대한 요구분석과 관련한 검사도구 [24]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Table 1은 연구도구 설문 목록을 나타낸다.

Table 1. Research tools

| division | Survey list |
|-------------------------------|---|
| General characteristic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e (20s, 30s, 40s or older) - Affiliation(enrolled students and graduates) - Career satisfaction of Students study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
| Entrepreneurship recogni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est in entrepreneurship - Career plan after graduation - Career plan after 5 years since they graduated - Reasons to want to start a business - Interest in entrepreneurship field - Whether a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s relevant when starting a business - What you think is most important when starting a business |
| Startup Education recogni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ubject(Education) Program related to entrepreneurship - Opinion on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related subject(education) program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students' career paths - Opinion on the need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related subject(education) programs for students - Opinion on Effective Operation of Startup subject(Education) Progra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 Improvements in the operation of startup subject(education) programs with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 Educational areas required for start-up -related subject(education) programs - Education management method preferred as a start-up-related subject(education) program - Education method suitable as a start-up -related subject(education) program - Instructor suitable for the ope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tudents' start-up subject(education) programs - Entrepreneurship course content you are most interested in |

2.4 연구 분석 방법

온라인으로 제작된 설문지는 응답결과를 엑셀파일로 저장 후, spss18.0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기본분포 및 인식에 관련하여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창업교육을 수강한 집단과 수강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해석

주요결과는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창업교육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결과를 정리하였다.

3.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Table 2. Age

| Age | Whether you take the course or not | | Sum N(%) |
|--------------|------------------------------------|------------------|------------|
| | Took N(%) | Didn't take N(%) | |
| 20s | 160(96.4) | 17(23.3) | 177(74.1) |
| 30s | 5(3.0) | 51(69.9) | 56(23.4) |
| 40s or older | 1(.6) | 5(6.8) | 6(2.5) |
| Sum | 166(100.0) | 73(100.0) | 239(100.0) |

Table 2에서 연구대상 총 239명 중 20대는 177명(74.1%), 30대는 56명(23.4%), 40대는 6명(2.5%)으로 나타났다.

Table 3. Affiliation

| Current affiliation | Whether you take the course or not | | Sum N(%) |
|---------------------|------------------------------------|------------------|------------|
| | Took N(%) | Didn't take N(%) | |
| Graduated | 19(11.4) | 63(86.3) | 82(34.3) |
| Attending | 147(88.6) | 10(13.7) | 157(65.7) |
| Sum | 166(100.0) | 73(100.0) | 239(100.0) |

Table 3에서 연구대상 총 239명 중 유아교육과 졸업생은 81명(33.9%), 재학 중인 학생은 157명(65.7%)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의 연령대는 보통 20대가 대부분 차지하며, 졸업생보다는 재학생 위주의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Career satisfaction of Students study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er satisfaction | Whether you take the course or not | | Sum N(%) |
|---------------------|------------------------------------|------------------|------------|
| | Took N(%) | Didn't take N(%) | |
| Very good | 47(28.3) | 13(17.8) | 60(25.1) |
| Good | 85(51.2) | 38(52.1) | 123(51.5) |
| Normal | 29(17.5) | 21(28.8) | 50(20.9) |
| Bad | 4(2.4) | 1(1.4) | 5(2.1) |
| Very bad | 1(.6) | 0(0) | 1(.4) |
| Sum | 166(100.0) | 73(100.0) | 239(100.0) |

Table 4에서 유아교육과 진로 만족도는 총 239명 중 183명(76.6%)가 만족, 6명(2.5%)이 불만족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전공 진로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3.2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

Table 5. Interest in entrepreneurship

| Interest in entrepreneurship | Whether you take the course or not | | Sum N(%) |
|---|------------------------------------|------------------|------------|
| | Took N(%) | Didn't take N(%) | |
| I will start a business unconditionally | 6(3.6) | 6(8.2) | 12(5.0) |
| I am considering starting a business | 62(37.3) | 30(41.1) | 92(38.5) |
| I Have never thought about it | 86(51.8) | 30(41.1) | 116(48.5) |
| I will not start a business | 8(4.8) | 5(6.8) | 13(5.4) |
| I will never start a business | 4(2.4) | 2(2.7) | 6(2.5) |
| Sum | 166(100.0) | 73(100.0) | 239(100.0) |

창업의 관심도는 총 239명 중 104명(43.5%)이 창업에 대해 관심이 있으며, 135명(56.5%)은 창업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으로는 수강의 경우 '무조건 창업을 하겠다'의 응답은 12명(5%), '창업 고려중이다'의 응답은 92명(38.5%), '생각해 본 적 없다'의 경우 116명(48.5%)로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의지에 대한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의견에 창업을 고려하는 응답이 총 43.5%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창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다고 볼 수는 없는 결과이다. 수강과 미수강의 경우로 보았을 때는 창업교육을 수강했던 학생의 경우 '생각해 본 적 없다'의 경우가 50이상을 차지했으나, 미수강의 경우 '창업을 고려한다'는 응답과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의견을 동일한 수치로 나타났다. 수강 집단과 미수강 집단에서 창업에 대한 관심도는 창업을 고려중에 있거나 무조건 창업을 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104명(40.9%)와 36명(49.3%)으로, 미수강 집단이 창업에 대한 의도가 조금 더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6. Career plan after graduation

| Career plan after graduation | Whether you take the course or not | | Sum N(%) |
|--|------------------------------------|------------------|------------|
| | Took N(%) | Didn't take N(%) | |
| Daycare center and kindergarten (private) teachers | 95(57.2) | 37(50.7) | 132(55.2) |
| Public kindergarten teacher after appointment test | 50(30.1) | 12(16.4) | 62(25.9) |
| Graduate school transfer After major intensification | 6(3.6) | 4(5.5) | 10(4.2) |
| Start a business | 3(1.8) | 12(16.4) | 15(6.3) |
| Employment in other majors | 5(3.0) | 2(2.7) | 7(2.9) |
| Etc | 7(4.3) | 6(8.3) | 13(5.5) |
| Sum | 166(100.0) | 73(100.0) | 239(100.0) |

졸업 후 진로계획은 총 239명 중 어린이집 및 공·사립 유치원 교사가 194명(81.1%), 대학원 편입이 10명(4.2%), 창업이 15명(6.3%) 등으로 나타났다.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빈도는 15명(6.3%)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립교사와 임용시험 후 공립유치원 교사를 나누어 조사하였으나, 유아교육기관에 취직의 진로로 크게 설정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총 81.1%이라는 수치이다. 앞서 조사한 유아교육과 전공 진로 만족도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전공에 만족하여 유아교사로 계획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7. Career plan after 5 years since they graduated

| Career plan after 5 years since they graduated | Whether you take the course or not | | Sum N(%) |
|--|------------------------------------|------------------|------------|
| | Took N(%) | Didn't take N(%) | |
| Daycare and kindergarten | 53(31.9) | 18(24.7) | 71(29.7) |
| Public kindergarten teacher after appointment test | 88(53.0) | 17(23.3) | 105(43.9) |
| Graduate school transfer After major intensification | 6(3.6) | 5(6.8) | 11(4.6) |
| Start a business | 10(6.0) | 24(32.9) | 34(14.2) |
| After-school care, assistant teacher | 2(1.2) | 4(5.5) | 6(2.5) |
| Etc | 7(4.3) | 5(6.8) | 12(5.1) |
| Sum | 166(100.0) | 73(100.0) | 239(100.0) |

5년 후 계획은 총 239명 중 어린이집 및 공·사립 유치원 교사가 176명(73.6%), 대학원 편입이 11명(4.6%), 창업이 34명(14.2%) 등으로 나타났으며, 졸업 5년 후에 창업을 하려는 계획이 34명(14.2%)로 유아교육과 졸업 후 진로의 경우보다 진로 5년 후의 경우에는 높게 나타났다. 수강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유아교육기관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141명(84.9%)으로 처음 계획했던 145명(87.3%)에서 4명(3.6%)정도의 수치만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었으나, 미수강 집단에서 살펴보면, 49명(67.1%)에서 35명(48%)으로 14명(19.1%)이 감소하고 있다.

Table 8. Reasons to want to start a business

| Reasons to want to start a business | Whether you take the course or not | | Sum N(%) |
|---|------------------------------------|------------------|------------|
| | Took N(%) | Didn't take N(%) | |
| More income than office workers | 19(11.4) | 18(24.7) | 37(15.5) |
| Difficulty in finding employment, anxiety | 13(7.8) | 2(2.7) | 15(6.3) |
| living | 16(9.6) | 3(4.1) | 19(7.9) |
| apptitude | 17(10.2) | 5(6.8) | 22(9.2) |
| Bring your own ideas to life | 31(18.7) | 19(26.0) | 50(20.9) |
| New challenge | 68(41.0) | 23(31.5) | 91(38.1) |
| Etc | 2(1.3) | 3(4.2) | 5(2.1) |
| Sum | 166(100.0) | 73(100.0) | 239(100.0) |

창업을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한 응답은 총 239명 중 새로운 도전 91명(38.1%), 아이디어 사업화 50명(20.9%), 많은 수입 37명(15.5%), 적성 22명(9.2%) 순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도전으로 창업을 하는 대상자 중에는 창업교육을 수강한 대상자가 68명(41.0%), 수강을 하지 않은 대상자 23명(31.5%)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새로운 도전 및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함으로 창업을 하고 싶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Table 9. Interest in entrepreneurship field

| Interested start-up field | Whether you take the course or not | | Sum N(%) |
|------------------------------|------------------------------------|------------------|------------|
| | Took N(%) | Didn't take N(%) | |
| Catering | 39(23.5) | 11(15.1) | 50(20.9) |
| Education (infants/children) | 87(52.4) | 47(64.4) | 134(56.1) |
| IT field | 1(6) | 1(1.4) | 2(8) |
| Health/beauty industry | 17(10.2) | 4(5.5) | 21(8.8) |
| Distribution business | 3(1.8) | 2(2.7) | 5(2.1) |
| manufacturing | 8(4.8) | 3(4.1) | 11(4.6) |
| Etc | 11(6.7) | 5(6.8) | 16(6.7) |
| Sum | 166(100.0) | 73(100.0) | 239(100.0) |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경우 관심 있는 창업분야는 총 239명 중 교육업 134명(56.1%), 외식업 50명(20.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과 관련하여 교육업(유아/아

동)의 분야에서 수강 및 미수강의 경우에도 관심비율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Table 10. Whether a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s relevant when starting a business

| Entrepreneurship Major | Whether you take the course or not | | Sum N(%) |
|------------------------|------------------------------------|------------------|------------|
| | Took N(%) | Didn't take N(%) | |
| Same field | 80(48.2) | 45(61.6) | 125(52.3) |
| Different fields | 36(21.7) | 19(26.0) | 55(23.0) |
| I don't know | 50(30.1) | 9(12.3) | 59(24.7) |
| Sum | 166(100.0) | 73(100.0) | 239(100.0) |

창업 시 유아교육 전공 관련 여부에 대해서는 125명(52.3%)가 같은 분야로 창업하겠다고 나타났으며, 55명(23.0%)은 다른 분야로 창업하겠다고 나타났다. 이는 관심 있는 창업분야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Table 11. What you think is most important when starting a business

| Important items | Whether you take the course or not | | Sum N(%) |
|---------------------------------|------------------------------------|------------------|------------|
| | Took N(%) | Didn't take N(%) | |
| Entrepreneur (challenge) spirit | 31(18.7) | 6(8.2) | 37(15.5) |
| marketability | 13(7.8) | 13(17.8) | 26(10.9) |
| advertisement marketing | 33(19.9) | 9(12.3) | 42(17.6) |
| Start-up fund | 14(8.4) | 7(9.6) | 21(8.8) |
| Items and skills | 56(33.7) | 27(37.0) | 83(34.7) |
| Managerial ability | 18(10.8) | 10(13.7) | 28(11.7) |
| Etc | 1(6) | 1(1.4) | 2(0.8) |
| Sum | | | 239(100.0) |

창업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업아이템 및 기술 83명(34.7%), 홍보마케팅 42명(17.6%), 기업가정신/도전정신 37명(15.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수강과 미수강의 비율로 살펴보면, 수강생이 경우에는 '사업아이템 및 기술' 56명(33.7%), '홍보마케팅' 33명(19.9%), '기업가정신/도전정신' 31명(18.7%)의 순이었으며, 미수강의 경우에는 '사업아이템 및 기술' 27명(37.0%), '시장성' 13명(17.8%), '경영자의 능력' 10명(1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아이템 및 기술'의 중요성 외 수강의 경우 홍보마케팅과 기업가정신/도전정

신이 후 순위로 중요하지만, 미수강의 경우 시장성, 경영자의 능력을 중요하다 보았다.

3.3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창업교육 요구

Table 12.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ducation related to ntrepreneurship

|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 Whether you take the course or not | | Sum N(%) |
|---|------------------------------------|------------------|------------|
| | Took N(%) | Didn't take N(%) | |
| I will participate unconditionally | 22(13.3) | 9(12.3) | 31(13.0) |
| I will participate in the circumstances | 84(50.6) | 45(61.6) | 129(54.0) |
| I don't know | 48(28.9) | 13(17.8) | 61(25.5) |
| I will not participate | 12(7.2) | 5(6.8) | 17(7.1) |
| I will never participate | 0(0) | 1(1.4) | 1(4) |
| Sum | 166(100.0) | 73(100.0) | 239(100.0) |

창업교육 참여 의사에 대해서는 160명(67.0%)가 참여하려는 의사가 있으며, 18명(7.5%)은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았을 때 기존에 미수강한 경우가 54명(73.9%)로 창업교육을 수강한 경우 110명(63.9%) 보다 창업교육 참여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강의 경우 수강의 경우보다 창업교육 참여의 의사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Table 13. Opinion on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related subject(education) program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students' career paths

| Influence of students' career path | Whether you take the course or not | | Sum N(%) |
|------------------------------------|------------------------------------|------------------|------------|
| | Took N(%) | Didn't take N(%) | |
| Very impact | 36(21.7) | 20(27.4) | 56(23.4) |
| Slight influence | 74(44.6) | 29(39.7) | 103(43.1) |
| Normal | 50(30.1) | 18(24.7) | 68(28.5) |
| Doesn't affect | 5(3.0) | 4(5.5) | 9(3.8) |
| Has no effect | 1(6) | 2(2.7) | 3(1.3) |
| Sum | 166(100.0) | 73(100.0) | 239(100.0) |

창업교육이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159명(66.5%)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2명(5.1%)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과 학생들도 창업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수치이다.

Table 14. Opinion on the need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related Education for students

| Opinion that you need a program | Whether you take the course or not | | Sum N(%) |
|---------------------------------|------------------------------------|------------------|------------|
| | Took N(%) | Didn't take N(%) | |
| Very need | 17(10.2) | 12(16.4) | 29(12.1) |
| Need | 56(33.7) | 30(41.1) | 86(36.0) |
| Normal | 89(53.6) | 26(35.6) | 115(48.1) |
| Unnecessary | 4(2.4) | 3(4.1) | 7(2.9) |
| Very unnecessary | 0(0) | 2(2.7) | 2(8) |
| Sum | 166(100.0) | 73(100.0) | 239(100.0) |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창업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115명(48.1%)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9명(3.7%)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상으로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창업교육은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는 수강, 미수강의 비율로도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창업교육은 필요하며,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다.

Table 15. Opinion on Effective Operation of Startup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 Effective operation | Whether you take the course or not | | Sum N(%) |
|---------------------|------------------------------------|------------------|------------|
| | Took N(%) | Didn't take N(%) | |
| Very yes | 33(19.9) | 3(4.1) | 36(15.1) |
| Yes | 72(43.4) | 11(15.1) | 83(34.7) |
| Normal | 52(31.3) | 33(45.2) | 85(35.6) |
| Not yes | 7(4.2) | 19(26.0) | 26(10.9) |
| Very not yes | 2(1.2) | 7(9.6) | 9(3.8) |
| Sum | 166(100.0) | 73(100.0) | 239(100.0) |

유아교육과 창업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에 대해서는 119명(49.8%)이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5명(14.7%)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보통이다' 85명(35.6%)의 결과는 '효과적이다'의 경우와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결과이므로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창업교육은 효과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보완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이라 여겨진다.

Table 16. Improvements in the operation of startup education with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 Improvements | Whether you take the course or not | | Sum N(%) |
|--|------------------------------------|------------------|------------|
| | Took N(%) | Didn't take N(%) | |
| Systematization of subjects Basic-> Practice | 24(14.5) | 25(34.2) | 49(20.5) |
| Customized support from start-up support organizations | 62(37.3) | 22(30.1) | 84(35.1) |
| Creating an on-campus startup atmosphere | 15(9.0) | 2(2.7) | 17(7.1) |
| Encourage the professor's entrepreneurial mind | 7(4.2) | 3(4.1) | 10(4.2) |
| I don't know | 55(33.1) | 20(27.4) | 75(31.4) |
| Etc | 3(1.9) | 1(1.5) | 4(1.7) |
| Sum | 166(100.0) | 73(100.0) | 239(100.0) |

유아교육과 내 창업교육 운영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창업 단계별 창업지원기관의 맞춤형 지원' 84명(35.1%), '잘모르겠다' 75명(31.4%), '창업교과목 체계화(1단계: 창업기초-2단계: 창업실무)' 49명(20.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 단계별 창업지원기관과의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창업교과목의 체계화로 "창업기초"교과와 "창업실무"교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Table 17. Educational areas required for start-up-related Education

| Education area | Whether you take the course or not | | Sum N(%) |
|-------------------------|------------------------------------|------------------|------------|
| | Took N(%) | Didn't take N(%) | |
| Career search | 42(25.3) | 20(27.4) | 62(25.9) |
| Economic education | 27(16.3) | 18(24.7) | 45(18.8) |
| Institutional operation | 48(28.9) | 13(17.8) | 61(25.5) |
| Personality, creativity | 32(19.3) | 8(11.0) | 40(16.7) |
| Entrepreneurship | 17(10.2) | 13(17.8) | 30(12.6) |
| Etc | 0(0.0) | 1(1.3) | 1(4) |
| Sum | 166(100.0) | 73(100.0) | 239(100.0) |

창업교육에서 필요한 교육영역에 대해서는 진로교육 관련 직업탐색 62명(25.9%), 유아교육기관운영 관련 교육 61명(25.5%), 경제교육 45명(18.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교육영역으로 진로교육 관련 직업탐색 및 유아교육기관운영과 관련한 교육, 창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교육 등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창업교육을 고루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창업교육이 앞서 나온 "창업기초"교과와 "창업실무"교과에서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하겠다.

Table 18. Education management method preferred as a start-up-related Education

| Training operation method | Whether you take the course or not | | Sum N(%) |
|----------------------------|------------------------------------|------------------|------------|
| | Took N(%) | Didn't take N(%) | |
| Offline education | 42(25.3) | 13(17.8) | 83(34.7) |
| On-offline mixed education | 55(33.1) | 44(60.3) | 99(41.4) |
| Online education | 68(41.0) | 15(20.5) | 55(23.0) |
| Etc | 1(6) | 1(1.4) | 2(9) |
| Sum | 166(100.0) | 73(100.0) | 239(100.0) |

창업교육에서 선호하는 교육 운영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교육 99명(41.4%), 오프라인 교육 83명(34.7%), 온라인 교육 55명(23.0%)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 혼합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과 미수강 집단의 비율로는 수강의 경우 온라인교육,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교육, 오프라인 교육의 순이었으나, 미수강의 경우 혼합교육, 온라인교육, 오프라인교육의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Table 19. Education method suitable as a start-up-related Education

| Education method | Whether you take the course or not | | Sum N(%) |
|----------------------------|------------------------------------|------------------|------------|
| | Took N(%) | Didn't take N(%) | |
| Subject 1 hour per week | 70(42.2) | 18(24.7) | 88(36.8) |
| Subject 2 hour per week | 25(15.1) | 11(15.1) | 36(15.1) |
| Nonsubject 1 hour per week | 59(35.5) | 24(32.9) | 83(34.7) |
| Nonsubject 2 hour per week | 12(7.2) | 19(26.0) | 31(13.0) |
| Etc | 0(0) | 1(1.4) | 1(4) |
| Sum | 166(100.0) | 73(100.0) | 239(100.0) |

창업교육으로 알맞은 교육방식은 교과과정 주1시간 88명(36.8%), 비교과과정 주 1시간 83명(34.7%) 순으로 나타났다. 수강의 경우에는 교과과정으로 주1시간, 비교과과정으로 주1시간, 교과과정으로 주2시간의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으며, 미수강의 경우 비교과과정으로 주1시간, 비교과과정으로 주2시간 순으로 의견을 주었다.

Table 20. Instructor suitable for the ope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tudents' start-up Education

| Suitable instructor | Whether you take the course or not | | Sum N(%) |
|--|------------------------------------|------------------|------------|
| | Took N(%) | Didn't take N(%) | |
| Actual Startup Instructor | 105(63.3) | 55(75.3) | 160(66.9) |
| Professor with professional training | 26(15.7) | 11(15.1) | 37(15.5) |
| Related organization manager | 28(16.9) | 5(6.8) | 33(13.8) |
| Professor of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6(3.6) | 1(1.4) | 6(2.5) |
| Etc | 1(6) | 1(1.4) | 3(1.3) |
| Sum | 166(100.0) | 73(100.0) | 239(100.0) |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창업교육 운영에 적합한 교수자에 대해서는 실제 창업자가 160명(66.9%)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창업교육의 경우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위해 실제 창업을 하고 있는 교수자를 적합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1. Entrepreneurship course content that you are most interested in

| Entrepreneurship course content you are most interested in | Whether you take the course or not | | Sum N(%) |
|--|------------------------------------|------------------|------------|
| | Took N(%) | Didn't take N(%) | |
| Entrepreneur (Challenge) Spirit Creative Thinking | 22(13.3) | 5(6.8) | 27(11.3) |
| Economic education for children | 51(30.7) | 13(17.8) | 64(26.8) |
| Start-up items (write business plan) | 31(18.7) | 16(21.9) | 47(19.7) |
| Startup Practice (Course) | 31(18.7) | 13(17.8) | 44(18.4) |
| Theoretical knowledge related to entrepreneurship | 31(18.7) | 25(34.2) | 56(23.4) |
| Etc | 0(0) | 1(1.4) | 1(4) |
| Sum | 166(100.0) | 73(100.0) | 239(100.0) |

가장 관심이 가는 창업교과 내용은 어린이경제교육 64명(26.8%), 창업 관련 이론 56명(23.4%), 창업 아이템 47명(19.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수강한 집단의 경우에는 어린이경제교육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창업아이템, 창업실전, 창업과 관련한 이론적 지식(상기권입지분석/ 부동산 계약실무/ 사업타당성분석/ 창업세무/ 점포활성화전략/ 마케팅/ 매출증대전략/ 지식 재산권 특허 등)의 비율은 같게 나타났다. 또한, 미수강의 경우에는 창업과 관련한 이론적 지식 가장 관심

이 가는 내용이다. 다음은 창업아이템(사업계획서 작성) 항목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비중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창업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창업기초” 및 “창업실무”에 체계적으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유아교육과 학생의 창업관련 교과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재학생과 졸업생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는 기초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 또한 졸업 직후의 진로와 더불어 졸업 후 기간이 지난 후의 진로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다양한 진로교육과 관련한 창업교육으로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창업에 대한 관심도는 유아교육과 재학생 및 졸업생의 창업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이 창업을 고려중이라는 의견도 43.5%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Table 8처럼 새로운 도전 및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창업이 필요하며, Table 9와 Table 10의 결과처럼 유아교육 전공이기에 교육업에 대한 창업분야를 선정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11은 사업아이템 및 기술이 중요한 창업요인이라 선택하였다. 이런 결과에서는 창업의도를 긍정적인 상황에서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전공분야의 교육업을 선호하기에 새로운 도전 및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생성해 낼 수 있는 교육으로 창업교육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able 6과 같이 유아교육과는 학과 특성상 졸업 후 진로는 대부분 유아교육기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 수 있으나, Table 7을 보면, 5년 후에 창업한다는 응답이 6%에서 약 2배 높아진 14%를 기록했다는 부분에 대해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도 중요하지만 졸업 후 시간이 지난 후의 학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배제하지 않고 진로 및 전공과 관련한 교육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겠다.

둘째, 창업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합형태의 다양한 교육영역과 내용을 비롯하여 창업지원기관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필요하다.

Table 12에서처럼 창업교육은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Table 13과 같이 진로에 영

향을 줄 것이기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Table 15의 결과를 보면, 효과적인 운영의 결과를 비추어볼 때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상당히 심도 있게 고려해봐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개선 운영사항으로는 Table 16에서 나온 것처럼 맞춤형지원 및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필요한 교육 영역으로는 진로교육 관련 직업탐색 및 유아교육기관과 관련된 교육, 창업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들의 비중이 비슷한 결과를 Table 17과 같이 나타낸다. 교육영역을 다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Table 18을 보면 운영방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교육, Table 19에서 보는 것처럼 교과과정 1시수, Table 20의 결과는 실제창업자가 창업교육 운영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뒷받침 하고 있다. Table 21은 가장 관심이 가는 창업교육 교과내용을 나타내고 있는데 창업교육 교과내용의 경우 어 린이경제교육, 창업이론적 지식, 창업아이템, 창업실전에 관한 내용들이 비슷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는 결과이다.

셋째, 학습자요구 분석을 통한 맞춤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Table 5처럼 수강 집단과 미수강 집단에서 창업에 대한 관심도는 미수강 집단이 창업에 대한 의도가 조금 더 강하고 참여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12는 미수강의 경우 수강의 경우보다 창업 교육 참여의 의사가 큰 것으로 해석하였다. '사업아이템 및 기술'의 중요성 외 수강의 경우 홍보마케팅과 기업가정신/도전정신이 후 순위로 중요하지만, 미수강의 경우 시장성, 경영자의 능력이 중요함을 Table 11에서 알 수 있다. Table 18의 교육운영방법에서 수강의 경우에는 교과과정으로 주1시간, 비교과과정으로 주1시간, 교과과정으로 주2시간의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으며, 미수강의 경우 비교과과정으로 주1시간, 비교과과정으로 주2시간 순으로 의견을 주었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연구되어 근거자료로 충분하다 보여진다. 수강한 학생들에게 수강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적 효과를 탐색하는 효과도 필요하다.

둘째, 유아교육과 졸업생 및 학생들로 필요여부를 조

사하였으나, 창업교육이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전문가 집단에서의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창업교육 필요성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를 계기로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수방법과 교수내용의 맞춤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무적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Y. H. Park. (2004). A study on Building Program Development Model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Adult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6(1), 141-171.
- [2] J. M. Kim. (2007). State of Korea SMEs Policy Information System and Development Dire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Conference*, 2007(1), 857-861.
- [3] D. H. Park. & S. C. Sung. (201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Competence, Entrepreneurial Attitud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Students -Verification of Difference between University and College. *Employment Career Research*, 9(3), 91-110.
- [4] C. G. Byun & C. S. Sung. (2017).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n Journal of Entrepreneurship*, 12(1), 90-108.
- [5] J. H. Park. & T. W. An. (2018)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Career Path of University Students. *Venture Startup Research*, 13(2), 177-192.
- [6] J. H. Kim. & S. H. Lee. & J. M. Nam. (2020). A Case Study on the Advancement of Uni. Start-up Educa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6), 96-108.
- [7] Y. S. Kim. & S. C. Sung. & J. Y. Park. (2018). An Analysis of Social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b Preference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Conferences*, 2018(2), 1-22.
- [8] J. H. Jo. (2019). An Exploratory Research on the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 s Start-up Preparation Process. *Core Competency Education Research*, 4(1), 29-46.

- [9] G. D. An. (2019). A Study on Development of subject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based on the Tough Situations of Young Startup in Korea. *Regional development research*, 51(2), 55-79.
- [10] J. S. Park. (2018) A Study on the Direc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Age of 4 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Types. *Korean Journal of Entrepreneurship*, 13(1), 1-28.
- [11] Y. T. Kim. (2018). A Comparative Study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between the Students of Experiential Entrepreneurship Class and Theory Centered Class. *Venture Startup Research*, 13(4), 49-58.
- [12] Y. M. Cheon. (2019). The Effect of Self-Constual of College Students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Recogni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Culinary science and hospitality research*, 25(7), 20-28.
- [13] J. H. Park. & T. W. An. (2016).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Education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Management Education Research*, 31(5), 1-24.
- [14] H. J. Lee. & J. S. Kim. (2019). An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s Characteristics to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Recogni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3), 13-23.
- [15] H. H. Oh. & I. S. Cho. (2019).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Education Satisfaction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Participan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 Family Support Adjustment Effect. *International Accounting Research*, 87, 39-68.
- [16] Y. T. Kim. (2017).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Attitude on Undergraduate Entrepreneurial Intention. *Venture Startup Research*, 12(2), 13-20.
- [17] J. R. Lee. & G. S. Chang. (2018). Impact of Startup Support Program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Opportunity Recognition:Startup Inten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Venture Startup Research*, 13(1), 43-60.
- [18] H. B. Cheong. (2017). A Study on the Efficient Design & Practices for the Start-up Education. *Venture Startup Research*, 12(1), 123-132.
- [19] W. J. Lee. & B. Y. Hwang. (2015). The Chronology of Kore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feature analysis and future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Venture Startup Research*, 10(3), 171-183.
- [20] O. J. Lee. & S. M. Kim. & S. H. Cjeong. & S. W. Lee. & G. H. Yoon. (2009). A Request for Optical Shop Startup Education of Ophthalmic Optics Students in Kyung-gi region. *Journal of Korean Ophthalmic Optics Society*, 14(1), 23-29.
- [21] S. Y. Moon. & H. G. Huh. (2017). Making Good Instruction for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ubject in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Learner-Centered subject Education Research*, 17(18), 101-130.
- [22] W. J. No. & J. W. Kang. & Y. J. Lee. (2019).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Startup Education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for the Development of Startup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2), 148-154
- [23] M. J. Kim. & S. H. Kim. & D. H. Lee. & B. C. Sung. (2019). A Study on the Influence of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revitalization of youth entrepreneurship. *Korean Business Research*, 3(1). 43-56.
- [24] S. J. Yoo. (2020), *The Effect of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Entrepreneurship Recognition of Undergraduates and Needs Analysis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박 지 은(Ji-Eun Park)

[정회원]



- 2012년 8월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 석사)
- 2019년 2월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박사 수료
- 2014년 8월 ~ 현재 : 어놀(문화센터&베이비카페) 운영
- 2017년 3월 ~ 현재 : 제주한라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 교수
- 2018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시간강사
- 관심분야 : 교육공학, 교육학, 유아교육
- E-Mail : 01067990724@hanmail.net

고 영 건(Yeong-geon Ko)

[정회원]



- 2010년 2월 :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2013년 8월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 2008년 1월 ~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 관심분야 : 교육공학, 행정학
- E-Mail : koyounggun@hanmail.net

조 정 원(Cho, Jungwon)

[정회원]



- 2004년 2월 : 한양대학교 전자통신 전파공학과 (공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 2020년 3월 ~ 현재 : 한국컴퓨터 교육학회 부회장, 논문지편집위원장

- 2012년 12월 ~ 현재 : 한국정보과학회 전산교육시스템 연구회 위원장
- 2018년 7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지능소프트웨어교육센터 센터장
- 관심분야 : 컴퓨터교육, 지능정보윤리, 지능형시스템, 멀티미디어
- E-Mail : jwcho@jejunu.ac.kr

박 정 환(Jung-Hwan Park)

[정회원]



- 1992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사)
- 1994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석사)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교육방법, 교육공학, ICT, Smart-Education
- E-Mail : edu114@jejunu.ac.kr